韓·中불교 매년 유학승 상호 교류한다

조계종 · 중국 국가종교국 상호 논의 시작

訪中 현응 스님, 종교국에 제안 "미래지향적 긍정 검토" 화답해 양국 스님 10명 교환 초청 교류 동아시아 불교 발전 · 세계화 기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 등 중국방문단은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중국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중국 승가교육 현장 탐방을 진행했다.

한국과 중국 불교가 매년 유학승은 상호 초청해 수학하는 등의 인적 교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조계종 교육원은 5월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원장 현응 스님 등이 지난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중국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진 중국 승가교육 현장 방문에 대한 성과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조계종 교육부장 진광 스님은 "중국 승가교육 현장을 방문하고 중국 국가종교국 · 중국불교협회를 공식 예방했으며, 이 자리에서 한 · 중 양국 불교가 추천하는 유학승 및 교환학생을 약 10명씩 초청해 상호 교류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협의는 현응 스님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현응 스님은 위파(余波) 중국 국가종교국 부국장과 만난 자리에서 "한 · 중불교 교류 21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실질적 교류를 위해 양국 불교가 추천하는 10명의 유학승을 교환해 양국 불교교육기관에 수학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현응 스님은 교환 유학승에 대한 체류 경비는 초청 측에서 부담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위파 부국장은 "매우 의미있고, 미래지향적인 제안"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중국불교협회 장 학성 스님 역시 "매우 뜻 깊은 일이다. 정부 당국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함께 배석했던 중국 외교부 아시아국 관계자들도 적극 지원할 뜻을 밝혔다.

현재 중국의 승려 수는 24만 명으로 각 지역마다 4년제 불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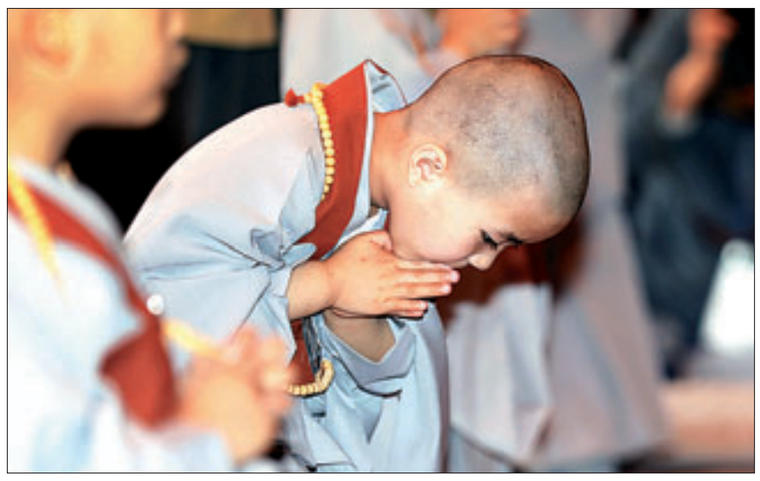
하지만 한국의 중앙승가대와 동국대와는 달리 중국의 불학원은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중국은 중앙승가대 등 한국의 승가교육 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종 교육원은 중국 국가종교국과 협의 통해 교환 수준과 형태를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상호협력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조계종 교육부장 진광 스님은 "한 · 중 불교는 오랜 역사와 문화 등을 공유하고 있다. 한 · 중 불교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면서 "한 · 중 불교간의 유학승들의 교류가 공식적으로 이뤄진다면 양국 불교 발전뿐만 아니라 불교 세계화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방문단은 현응 스님을 비롯해 중앙승가대 총장 성문 스님, 동국대 대외협력처장 종호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장 무애 스님 등이 함께 했으며, 베이징 용천사 · 법원사 · 서안 법문사 등의 불학원들을 방문했다.

한편, 중국불교협회 한국불교교육 고찰단은 오는 6월 3~8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중앙승가대 · 동국대 · 통도사 및 운문사 승가대학을 참관하며,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예방해 양국 불교 교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어리지만 부처님같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서울 조계사에서 천진불들이 탄생했다. 5월 2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동자승 단기출가 삭발수계식에서 파르라니 머리를 깎은 동자승들은 부처님처럼 이 시대 많은 대중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평화와 자비 사상을 펼칠 것을 서원했다.
이날 단기출가 삭발수계식 이후 동자승들은 5월 7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JSA법당을 방문해 한반도 평화를 기원한다. 특히 도라산 전망대 등을 돌아보고 '화합과 평화의 발원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글=노덕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익산 미륵사지 본격 정비 착수

문화재청 · 익산시, 기단부 · 강당지 앞 배수시설 정비

백제권 최대 사찰인 익산 미륵사지에 대한 정비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과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의 하나로 익산 미륵사지(사적 제150호) 내 강당지, 동 · 서 승방지, 동원 회랑(回廊) 등의 기단부와 강당지 앞 배수시설 개선을 위한 유적 정비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4월 30일 밝혔다.

이번 기단부와 배수 시설의 보수정비 공사는 훼손된 건물지 기단부를 정비하고, 배수 문제로 인한 유구 훼손 방지와 관람환경을 개선하고자 이뤄지는 것이다.

문화재청과 익산시는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보수정비공사 완공 시기를 고려해 정비를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익산 미륵사지는 1966년 최초 발굴조사 이후,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총 16차례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미륵사지 조성 시기와 사역구조, 운영 시기 등 전반적인 사항들이 밝혀진 바 있다. 2015년에는 중앙 회랑지와 강당지 구간 사이에서 석재와 배수로가 발견되어 2016년 9월부터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문화재청은 2013년부터 유적정비와 복원 고증에 관한 연구를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미륵사지 석재유구 훼손도 연구', '배수문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등을 진행해 왔다.

문화재청은 "향후 이러한 학술연구를 바탕으로 익산시와 함께 익산 미륵사지의 역사적 가치를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익산 지역의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을 통해 백제 왕도의 역사성 회복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윤이상 선생 고국 첫 추모재 봉행

조계종 사회노동위, 통영서

작곡가 윤이상 선생의 고국 첫 추모재가 고향 통영 묘소에서 봉행됐다. 평소 불교신자였던 윤 선생의 뜻을 기려 조계종이 앞장섰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는 5월 2일 통영국제음악당 뒤편 윤이상 묘역에서 추모재를 봉행했다. 이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통영 · 고성사암연합회가 자발적으로 나서 유족과 협의해 추진했다. 조계종이 먼저 윤이상 선생을 기억하고 명복을 빌고자 유족에게 추모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노동위원장 혜찬 스님은 "음악을 통해 남북평화를 꿈꾸었던 윤이상 선생은 고향을 평생 그리워하셨다"며 "윤 선생이 통영 앞바다를 바라보며 극락왕생 하길 바란다. 우리도 함께 남북통일을 위해 정진하자"고 기원했다.

박진형 기자

종교계, 저출산 극복 위해 나선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4월 30일 프레스센터서 선언

결혼 전문업체 '가연'과 협약 "혼인서 출산 고리 만들자"


선언문을 발표한 조계종 사회부장 진각 스님 등 참석자들이 선언문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7대 종단 지도자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사단법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이하 종지협)는 4월 30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종교계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운동 선포식'을 열었다.

종지협은 불교, 원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국내 7대 종교간 화합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이들은 이번 선언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종교계가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대신해 참석한 조계종 사회부장 진각 스님은 선언문을 통해 "저출산 문제는 가장 시급한 사회문제"라며 "이에 종교계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선언을 계기로 △가족 친화적 가치관 확산을 통한 사회문화 개선 △생명 존중 사상 전파 △아이와 부모가 행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종지협은 그 시작은 결혼이라며, 결혼정보 전문업체 '가연'과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 이후 구체적 방안은 7대종단 운영위원들과 지속적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김영주 가연 결혼정보 대표는 "미혼남녀 대상 매치코리아 무료 제공 서비스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연애 활성화와 혼인 성사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포식에 함께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 극복 선포식을 계기로 태어난 모든 아이가 소중하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이 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우리 국민과 사회단체, 기업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선포식에는 조계종 사회부장 진각 스님, 원불교 한은숙 교정원장,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엄기호 대표회장, 유교 김영근 성균관장, 천도교 이정희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박우균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보리수아래, 5월 16일 '연꽃들의 노래'

불자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공연 한마당인 '제11회 보리수아래 핀 연꽃들의 노래'가 5월 16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열린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열리는 이번 '연꽃들의 노래'에는 아시아장애인 공동시집 2권 발간과 대만 불교문화체험을 준비하는 의미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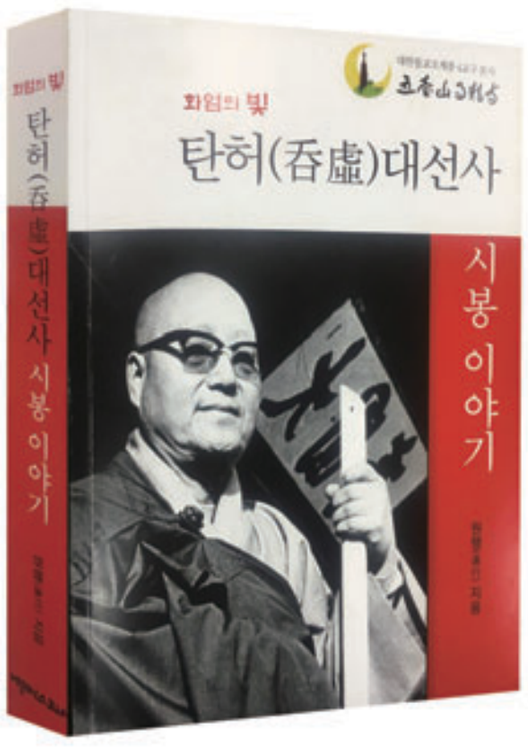
행사에서는 지도법사 법인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 격려사와 함께 유재필 보리수아래 회원과 엄하나씨의 부처님오신날 축하 시낭송, 가수 박경하, 시노래 풍경가수 진우, 조계사 사회국장 운문 스님, 연화원 발달장애부모난타팀, 이미령 북칼럼니스트, 해와달밴드, 중앙승가대 동아리 '자비나눔' 학인스님 등의 공연이 펼쳐진다.

한편, 불자 장애인 모임인 보리수아래는 현 조계사 주지인 지현 스님의 지원으로 2006년 7월 창립된 이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장애인식 개선 활동과 문학활동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02)959-2611

노덕현 기자

오대산 월정사 조실 탄허(呑虛) 대종사 35주기 추모

출판법회 및 통일강연회



일시 : 2018. 5. 17목 am10:30

장소 : 서울 엠버서더 호텔(장충동)

① 제1부 한반도 통일 기도 - 원행스님(조계종 원로의원)

② 제2부 출판법회
• 탄허(呑虛)대선사 시봉이야기 - 서평 조정래(소설가 - 태백산맥 저자)

③ 제3부 통일 강연회
• 탄허(呑虛)의 한반도 통일론
가) 불교의 화엄사상으로 - 각성스님(부산 화엄사 조실)
나) 주역(周易)의 관점에서 - 기세춘 선생(묵점 : 주역대전 저자)
다) 동양사상의 예언속에서 - 장화수 교수(중앙대학교 명예교수)

귀의 삼보하옵고
무술년 춘절을 맞이하여 귀하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평창에서 싹튼 「평화! 새로운 출발」로 「4 · 27 판문점 남북협정」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대산 월정사 조실 『탄허(呑虛) 대종사 35주기 추모』, 『통일기도』와 『강연회』, 『시봉이야기』 출판 법회 등을 다음과 같이 봉행코저 하오니 무루 동참하여 귀하의 가피를 기원 드립니다.

후원 : 십시일반 농 협 351-0510-9355-03 김홍길(자광회장)
새마을금고 9003-2407-4526-6 김홍길(자광회장)

연락 : 아셈연구원 : 02-730-2740 자광회 : 02-764-7941
대한언론인회 : 02-732-4797 월정사 : 033-339-6800

오대산인 원행(遠行) 합장